

구혜선 “안재현과 이혼 합의 NO” vs 소속사 “최근 협의”



구혜선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이혼 원해...저는 가정 지킬 것”

소속사 측 “지금까지 논의 진행 과정 모두 생략된채 입장 올려 유감”

배우 구혜선(35)이 남편 안재현(32)과의 불화에 대해 폭로했다. 이후 두 사람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구혜선이 이를 다시 반박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구혜선은 1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실되기를 바라며)”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안재현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안재현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3일 전에 당신이 준 합의서랑 언론에 올릴 글 다음주에 내겠다고 tvN ‘신서유기’ 측이랑 이야기를 나눈 상황”이라고 했고, 구

혜선은 “다음 주 아니고, 얼마 상태 보고,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주세요. 서류 정리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며 “내 엄마보다 일 먼저라고? 이런 껄뻐한 이야기가 어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구혜선은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는 글이 적힌 게시물과 문자 메시지를 폭로한 글 모두 이날 오전 삭제했다.

이후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통해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구혜선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 8월 중으로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9월에는 이혼에 관한 정리가 마무리되기를 원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구혜선이 직접 적은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 초안을 공개하며 “금일 새벽 구혜선의 SNS 게시글과 이를 인용한 기사를 접했고 안재현 및 당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간에 진지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 이혼 합의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혜선은 다시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공식 보도자료가 오고 갈 것을 예상하여 어제 급히 내용을 올렸습니다”라며 소속사의 공식 입장에 반박했다. 그는 “타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입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혜선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구혜선이 “이사님 만나 이야기 했는데 당신이 대표님한테 내가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카톡을 읽은 것으로써 부부와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전달했다고 들었어. 회사에서 우리 이혼 문제 처리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원하면 계약 해지해 주시겠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나가면 바로 이혼 소문 날거니까 나도 당신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하려고 해. 그런 내가 회사도 나가고, 이혼을 하면 일이 없게 되니”라며 “자유는 이전과 같이 당신의 변심 신뢰 훼손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사실대로 말하고”라고 전했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방영된 드라마 KBS 2TV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6년 결혼했다.

뉴스

‘멜로가 체질’ 안재홍, 천우희와 어색한 관계 1일→구남친에 질투

‘멜로가 체질’ 안재홍의 마음이 천우희가 자리를 잡은 것일까.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멜로가 체질’ (극본 이병현, 김영연 연출 이병현, 김혜영) 4화에서는 오늘부터 1일을 시작한 진주(천우희 분)와 범수(안재홍 분)가 지난밤의 흑역사를 잊고 드디어 연인관계 1일이 아닌, 그냥 어색한 관계 1일을 맞이했다. 일은 해야 하나 안 만날 순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으니 내린 배우 신선타 아이디어. 하지만 대본 이야기에만 돌입하면 둘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범수는 여전히 섬세하고 치밀하게 지켰고, 진주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다. 진주에게 심지어 무기도 하나 생겼다. 말도 안 되는 기타 솜씨로 지난밤 밝혀진 범수의 약점, 구여친이 작사한 그 사랑 노래를 불러 대며, 범수의 말문을 막은 것이다.

이어 방송곡에서 만나자하니, 구남친 환동(이유진 분)도 다시 마주했다. 시종일관 쌀쌀맞은 진주에게 “넌 아직도 내가 밉니? 미우면 헤어질 게 아니 라던데”라고 떠본 환동. 하지만 진주

는 “미운 상태에서 헤어졌으니 당연히 미운 거고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 그게 헤어질 거고”라며 선을 그었다. 이렇게 시종일관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을 목격한 범수는 신경이 쓰였다.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 동기(허준석 분)에게 전화해 “헤어진 지 2년 넘은 남자가 왜 만나서 투닥투닥 싸우는 거야? 감정이 남은 거지”라며 “답정너”를 시전했다. 이렇게 범수의 입덕 부정기가 시작됐다.

은정은 선배의 대타로 ‘소문으로 들었소’에 패널로 출연하게 됐다. MC가 연력이 굵직한 대학 동기이자 스타가 된 소민(이주빈 분)으로 바뀌었다는 걸 모른 채, 딱 봐도 서로 상극인 둘은 녹화 내내 으르렁거리며,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무려 9시간이나 녹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담당 PD의 뼈를 쥐는 ‘악마의 편집’, 아니 ‘천사의 편집’으로 정작 방송분에선 훈훈한 대학 동창 사이가 돼있었다. 그렇게 이 프로그램의 고정인 된 은정, 소민을 주인공으로 한 ‘여배우’ 다큐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안을 받았고, 특이한 캐릭터인 그녀에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주는 이른 사춘기에 돌입한 것 같은 초등학교 아들 인국(설우형 분)이 말끝마다 슬쩍슬쩍 아빠 이야기를 꺼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작 “아빠 보고 싶어”란 질문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심란한 마음을 안고 간 사무실은 난리가 나있었다. 재훈(공명 분)의 여자친구 하윤(미림 분)이 찾아와 “네가 나보고 감히 헤어질 자고?”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 그런 그녀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친 재훈은 한주가 알았던 후배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난 방송 말미에서도 한밤 중 술에 취해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와 잠들어버린 하윤에게 씩씩한 얼굴로 이불을 덮어주던 재훈. 어쩌다 이렇게 ‘버티는’ 연애를 하게 된 걸까.

더불어 범수는 기타를 빼앗아 진주가 하루 종일 그의 말문을 막은 사랑 노래를 완벽하게 불렀다. 그간 세상 재수 없던 모습과는 다르게, 노래를 부르는 범수에게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색다른 감정이 느껴졌다. 노래를 마친 범수는 어딘가 공허한 얼굴로 “사랑은 변하는데 사실이 변하지 않네. 사랑하



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거든. 기회를 놓치면 어때요? 당연히 아프지. 이런 거로 사랑 놀리거나 하고”라고 했다. 지난 사랑의 아픔을 인정하는 그의 진심을 느낀 것인지, 진주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방탄소년단, ‘호르몬 전쟁’ M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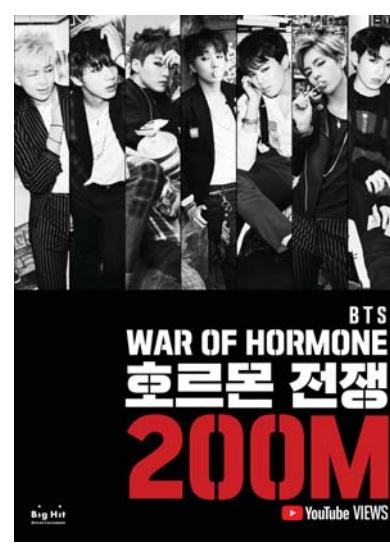
2억뷰 돌파...한국 가수 최다

그들 방탄소년단의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가 2억뷰를 돌파했다.

18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4년 8월에 발매한 첫 번째 정규 앨범 ‘DARK & WILD’의 수록곡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11시55분께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었다.

이는 원더케이(1theK)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호르몬 전쟁’ 뮤직비디오의 단독 조회수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계정의 뮤직비디오 조회수와 합산하면 2억 636만 건을 넘는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첫 8억 뷰를 돌파한 DNA'를 비롯해 '블타오르네 FAKE LOVE' 'MIC Drop' 리믹스 'IDOL' '쩨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By With Luv)' feat. Halsey '피 땀 눈물' 'Save ME' '낯부터이 (Not Today)' '상남자' '말할 호르몬 전쟁'까지 2억뷰를 넘긴 뮤직비디오 총 13편을 보유하게 됐다.



‘호르몬 전쟁’은 강렬한 록 기타 사운드와 드럼이 결합된 신나는 힘찬 곡이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가슴이 뛰는 것은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는 신선한 가사와 비트 위에서 신나게 달리듯 펼쳐지는 래핑이 매력적이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